

[사회]

맨손 어민들 “빈손으로 설 설 판”

‘타르 피해’ 생계 지원금 대상 제외 전남 서해안 횡집 업주들도 ‘한숨’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여파로 피해를 입은 전남 서해안 맨손어업 어민과 횡집 등 음식점과 민박·펜션 등 숙박업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깊은 시름에 잠겼다.

지난달 31일부터 김 양식이나 가두리 양식을 하는 어민들이 170만~60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받는 것과 달리 신고를 하지 않은 맨손어업 어민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4일 오후 2시 무안군 해지면 만풍리 해안가에서 만난 김모(67)씨는 이번 원유 유출 사고로 기름띠가 밀려든 만풍리 갯벌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맨손어업 어민인 김씨는 매년 굴과 감태를 채취, 생계를 이어 왔는데 무신고 맨손어업이라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처지에 놓였다.

김씨는 “감태 등을 채취해 도시민들에게 팔아 아이들 대학도 보내고 시집, 장가 다 보냈는데 타르 피해로 모든 것을 잃었다”며 “한달 이상 작업을 못해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다. 차려상 차릴 업주가 안 난다”고 고개를 떨궜다.

이 마을에서 굴, 감태, 낙지 등 맨손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맨손어업 어민은 150여명. 이 중 110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신고 맨손어업 어민들이다. 이들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타르 피해를 입은 횡집과 숙박업소 업주들의 명절도 출기만 하다. 같은 날 오후 4시 무안군 도리포 해수욕장 인근 M횡집. 싱싱한 활어로 가득 차 있을 수족관은 벌써 한달째 텅 비어 있었다. 이 횡집은 한겨울 숨어 절을 맞아 하루 1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 왔으나 현재 하루 매출을 10만원도 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설맞이 대청소

4일 오후 광주시 남구 효덕동 주민자치센터 직원들과 주민자치위원, 새마을부녀회 회원 등 50여명이 설 명절을 맞아 거리 청소를 하고 있다. 남구청은 이날 800여명의 공무원과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16개 동 지역을 돌며 대청소를 했다. /최한혜기자 choi@kwangju.co.kr

이 횡집 주인 김모(여·55)씨는 “타르로 인해 영업을 직격탄을 맞았는데, 보상은 200만원 남짓 밖에 받지 못하게 생겼다”며 “설이고 뭐고 생계비 보상문제 때문에 속병만 깊어지고 있다”고 한탄했다.

전남도는 지난달 31일 긴급생계지원비 168억원을 정부로부터 배정받아 영광군 57억원, 무안군 32억원, 신안군 79억원 등을 송금 조치했다. 전남도는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피해 유형 및 피해 정도별 가중치에 따라 170만~600만원까지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해당 지자체가 협의한 업종별 보상 기준안에 따르면 ▲김 양식 피해의 경우 400만(200척 미만)~600만원(200척 이상) ▲어선 어업 300만원 ▲맨손어업 170만원(맨손어업 신고자 포함) ▲김 가공업 500만원 ▲기타(해조류, 가두리, 횡집 등) 200만원 등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무신고 맨손어업 어민들도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구제책을 구상 중에 있다”며 “피해 어민들이 즐거운 설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광주시 산하기관 감사 위법 141건 적발 북구청 72건 ‘최다’

광주시는 4일 종합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북구청 등 본청 및 산하·직속기관 등 7곳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모두 141건의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해 시정·주의 조치했다.

북구청은 모두 72건으로 위법·부당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종합건설본부 20건, 상수도사업본부 남부·광산사업소는 15건, 광주신용보증재단 11건 순이었다.

북구청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직원들의 직렬과 직급을 고려하지 않고 직원 5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으며, 주차장 관리 예산 2억8천여만원을 용도에 맞지 않게 집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광주신용보증재단은 뚜렷한 절차없이 이사장 결정만으로 직원을 특별 채용한 데 이어 보수지급 규정도 없는 복직 관련 수당 3천320만 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해 적발됐다.

건설관리본부는 공사 용역비를 잘못 계산해 2천4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했으며, 도로 2개 노선을 잘못 설계하는 등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

심술 부리는 하늘 2월 5일 (음 12월 29일) 전국날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며, 구름이 많겠다.

광주	구름 많음	-3~3℃
전남	구름 많음	-1~4℃
전북	구름 많음	-2~4℃
충남	구름 많음	-1~4℃
충북	구름 많음	-5~4℃
충청	구름 많음	-4~4℃
경남	구름 많음	-4~5℃
경북	구름 많음	-5~5℃
강원	구름 많음	-3~3℃
제주	구름 많음	-1~4℃
서울	구름 많음	-6~2℃
부산	구름 많음	-8~2℃
대구	구름 많음	-8~2℃
인천	구름 많음	-8~2℃
대전	구름 많음	-8~2℃
전주	구름 많음	-8~2℃
목포	구름 많음	-8~2℃
여수	구름 많음	-8~2℃
울릉도	구름 많음	0~3℃
독도	구름 많음	0~3℃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1.5m
남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1.5m
남해북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0m
목포 밀물 < 00:29 썰물 < 06:10
목포 밀물 < 13:33 썰물 < 19:05
여수 밀물 < 08:38 썰물 < 01:50
여수 밀물 < 20:24 썰물 < 14:42

▲해돋이 07:29 ▲해질 16:04 ▲달돋이 06:15 ▲달질 16:02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6(수)	7(목)	8(금)	9(토)	10(일)	11(월)
날씨						
최저/최고	-2/4	-2/3	-2/3	-3/5	-3/6	-3/6

한국 바다 쓰레기 年 14만t

41곳 조사...전남 수거량 연간 2천여t 그쳐

우리나라 해역의 쓰레기 발생량이 연간 14만t에 이른다는 추정이 나왔다.

해양수산부는 4일 “연근해 일부 지점을 정해 표본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나라 해역의 연간 쓰레기 발생량은 태종이나 홍수 등 집중호우때 강·하천을 통해 육지에서 유입되는 쓰레기 9만9천t, 폐그물 등 바다에서 발생한 쓰레기 4만2천t 등으로 모두 14만1천t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쓰레기로 인한 주민 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나 쓰레기가 많은 곳으로 추정되는 41개 해역을 대상으로 해양 쓰레기 분포를 조사한 결과,

특히 광역시 7천ha에 118t의 쓰레기가 쌓여 있는 등 4년간 모두 40만t가량의 바다 밑 쓰레기를 발견했다”며, “이중 11만5천t는 꼭 치워야 할 쓰레기이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해양 쓰레기를 10%씩 줄여나가고, 바다 밑에 침적돼 있는 쓰레기를 7천t씩 치워나가는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전남도는 지난 2004년 2천40t, 2005년 2천86t, 2006년 1천285t, 2007년 5천250t 등 연평균 2천665t의 바다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그치고 있다. /김정기자 jnews@

광주·전남 올해 ‘대입 농사’ 풍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합격 크게 늘어

광주·전남지역 수험생들이 2008학년도 대입에서 좋은 성적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출신 서울대 합격자 수는 140명으로 지난해 130명보다 7.7% 늘었다. 연세대 합격자는 172명으로 지난해 118명(45.8%)에 비해 54명(45.8%), 고려대 합격자는 198명으로 지난해 156명보다 42명(26.9%) 증가했다.

이 밖에 ▲한양대 161명 ▲성균관대 206명 ▲이화여대 90명 등 수도권

대학에 총 2천609명이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천488명보다 121명(4.9%) 늘어난 숫자다.

단과대별로는 광주 출신 의과대학 합격자가 120명으로 전체 모집정원의 8.4%를 차지했으며, 한의과대학에 전체 정원 821명 중 40명(4.9%), 치과대학 230명 중 10명(4.4%), 사관학교 550명 중 89명(16.2%), 경찰대학 120명 중 26명(21.7%) 등이 합격했다. 광주의 수험생 비율은 전국 전체 수능응시자 대비 3.3%이다.

서울대 합격자를 학교별로 나누면, ▲금호고와 광주과학고가 각각 10명 ▲문성고 9명 ▲송일고 8명 등이었으며 광주 시내 39개 고교에서 1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서울대 합격자 수가 지난해 72명에서 올해 81명으로 9명(12.5%) 늘었다. 전남에서는 전남과 학교가 10명으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냈고, ▲목포영흥고·여천고·광양제철고 4명 ▲목포마리아학교·목포홍일고·목포덕인고·순천효천고·순천해통고 3명 등이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순천 효천고 남녀 학생비 뒤바뀌어

도교육청 통보 않고 변경 ‘혼란’

전남도교육청이 2008학년도 도내 고등학교 학급을 배정하면서 해당 학교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채 예년과 달리 남녀 학생 비율을 크게 바꾸는 바람에 학교는 물론, 학부모·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고교 학급배정에서 순천 효천고 남녀 학급 비율을 기존 남학생 64% 여학생 36%에서 남학생 47% 여학생 53%로 바꿨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지난해 10월 변경된 학급 배분 원칙을 세우면서도 해당 학교에는 이를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효천고는 지난 1998년부터 학칙에 따라 남녀 비율을 64%대 36%로 배정받고 있어 이번 학년도에서도 그대로 배정받을 것으로 알고 있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효천고의 남녀 비율을 순천지역 남녀 공학 평균 남녀비율로 조정하는 행정조치를 한 뒤 시행했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효천고는 도교육청으로부터 남녀 학생 변경에 따른 문과 교사 확보와 화장실 증설 등을 약속받고 일 단 배정된 학생들을 받아들여기로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지역 보육시설 평가인증 확대 유도

광주시에 ‘보육시설 평가인증률’이 낮은 관내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전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제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은 보육 시설, 보육 프로그램, 교사 역량, 건강 및 영양 관리, 안전 기준 등 보육 관련 업무 전반에 걸쳐 평가를 받아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을 인증하는 제도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관내 보육시설 1천45곳 가운데 평가인증을 획득한 곳은 지난해 말 현재 132곳으로 인증률이 12.6%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에 따라 평가인증 참여 시설에 대해 교육과 워크숍 등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2010년까지 관내 모든 보육시설이 인증을 획득하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이를 추진할 기관인 광주보육정보센터에 5천만원의 예산을 지급기로 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청계공원을 추천합니다

1. 도심지역 최고의 상류주택 무한한 가치보장!

2. 최남북도의 명당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3. 11년 3885일 언제든 현상납사 환영!

111㎡

119㎡

127㎡

127㎡

135㎡

135㎡

143㎡

143㎡

151㎡